

## 요약

# SW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中소참여 확대 서울시, 차별화된 디지털산업 육성정책 세우야

## 디지털산업, 서울시 미래먹거리 ‘디지노믹스’ 실현 핵심수단

상상을 현실로 바꿔주고 융·복합에 따라 산업·경제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이를 가능케 하는 핵심인 ‘디지털’이 재조명 받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산업 간, 산업 내, 제조업과 서비스 등 각종 분야에서 융·복합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디지털기술은 신규 사업 발굴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동력으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서울수도 디지털 경제를 표방하면서 ‘디지노믹스’ 실현을 위한 디지털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정보화, 지식화에 이은 스마트화는 도시를 변화시켜 디지털경제 생태계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그 핵심 수단이 디지털산업이다. 서울은 국내 디지털산업의 중심지로서, 디지털산업 육성방안 마련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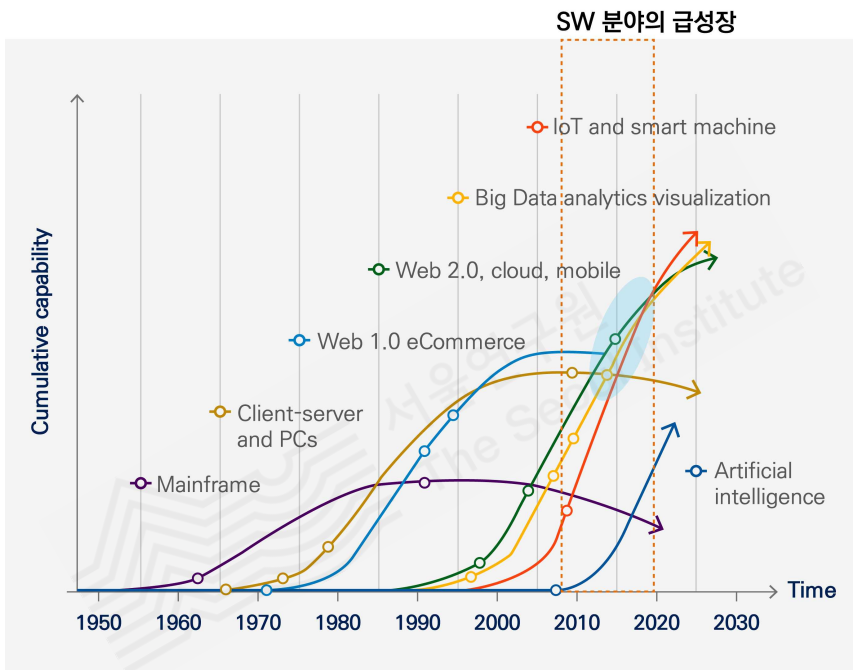
##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혁명 기반 기술 융합해 패러다임 전환

디지털 분야를 비롯한 산업계 전체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2016년 1월 개최했던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대주제로 제시되었던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로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 기술융합을 통한 혁신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것이다. 세계경제포럼 창립자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디지털혁명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과학기술을 융합해 개인뿐 아니라 경제, 기업, 사회에 유례없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유도한다”고 주장하였다<sup>1)</sup>. 같은 시기에 열렸던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인 CES 2016에서도 화두는 드론, 로봇, 가상현실(VR) 등 디지털을 기반으

<sup>1)</sup> 클라우스 슈밥, 송경진 역, 2016,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새로운 현재.

로 한 인공지능 기술이 핵심인 분야였다.

4차 산업혁명이 이루는 세상은 '모든 것이 연결되는(Connected) 보다 지능적인 사회'라 할 수 있다. 이는 IoT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가상과 현실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통합시스템으로, 지능형 CPS(cyber-physical system)를 구축한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인간 중심의 지능화된 서비스로 더욱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융·복합과 디지털산업은 새로운 가치와 산업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자료: McKinsey, 2016, Digital Transformation of Industries

**[그림 1]** 디지털기술의 발달 모습

## 미국·EU 등 선도국, 주도권 확보하려고 다양한 육성정책 시행

미래산업을 주도할 최신 디지털기술 및 디지털변화에 주목하면서 SW 개발과 플랫폼 구축 및 기능 개선 등이 강조되고 있다. 플랫폼, 솔루션을 제시하는 SW 역량이 디지털산업의 핵심 성공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산업 선도국들은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육성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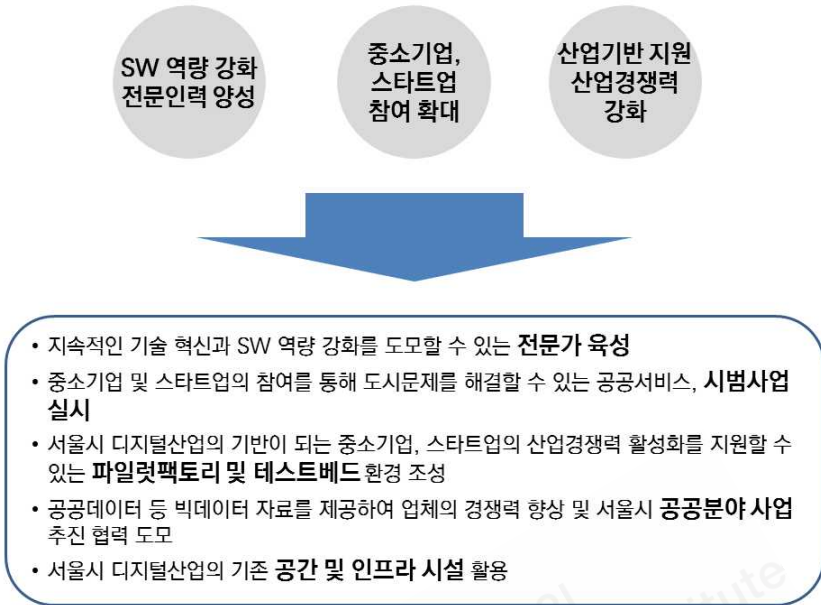
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기반의 열린 정부(Open Government) 구현을 표방하면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스마트 시티 등 최신 디지털기술을 적용하여 공공서비스의 효율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범유럽 차원에서 미국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항하기 위해 ‘유럽 디지털어젠다 2020’을 수립하여, 인터넷 사용을 비롯한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 네트워크 표준화 및 온라인 보안 개선, 전자정부의 실행 등 분야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정보화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경제 차원의 질적 산업 성장을 추구하고면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최신 디지털기술과 전통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도모하고 있다.

## 서울시, 강점 지닌 SW개발·정보처리 분야 특화전략 마련 필요

우리 정부도 디지털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의 전환을 모색하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있다. 최신 디지털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19대 미래 성장동력 분야를 제시하면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최신 디지털산업 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서울시는 ‘창조경제 모델’과 ‘경제비전 2030 계획’을 통해 디지털산업의 육성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3가지의 차별화된 디지털산업 육성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SW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이다. 디지털 기술 및 산업, 트렌드 변화의 핵심은 SW 역량이며, 이를 위한 인재육성이 경쟁우위 확보의 필수요소이다. 서울시 디지털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처리,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 특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서울시 디지털산업의 주체인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사업 전개를 유도해야 한다. 서울시의 공공서비스 개선에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디지털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서울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시범사업 추진을 고려해본다. 셋째, 서울시 디지털산업 기반을 지원하되 기존 공간과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건물, 시설, 센터 설립 등 신규 하드웨어 지원은 지양하고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자는 의미이다. 이와 함께 최신디지털기술의 사업화 여건 마련을 위한 파일럿팩토리<sup>2)</sup> 및 테스트베드<sup>3)</sup> 환경 조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사업구상 단계의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제작해볼 수 있는 환경, 시스템, 설비

3) 제작한 상품, 기술, 서비스 등의 효과와 성능을 시험해볼 수 있는 환경, 시스템, 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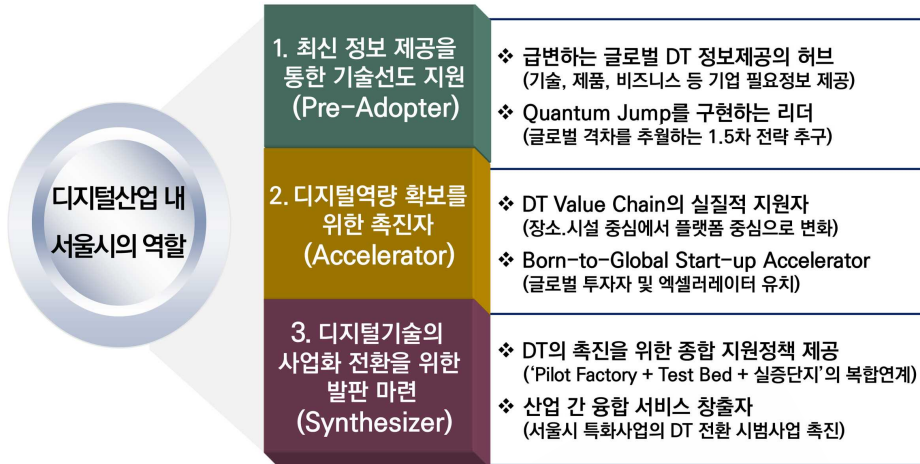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시 디지털산업 차별화 방향

## 서울시 역할은 최신정보·기술고도화 지원 등 산업 육성양분 제공

디지털 변혁기를 맞고 있는 서울시도 디지털산업 육성을 위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첫 번째 역할은 디지털 관련 최신정보 제공을 통한 기술선도 지원이다(Pre-Adopter). 급변하는 글로벌 디지털환경 관련 정보를 서울시 디지털산업 참여자들에게 제공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 역할은 기술·투자지원을 통해 서울시 디지털산업의 역량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Accelerator). 이는 장소, 시설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벗어나 플랫폼 중심으로 지원방식의 변화를 추구함을 의미한다. 세 번째, 디지털기술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역할 수행이다(Synthesizer). 디지털변환을 통한 시범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융합 서비스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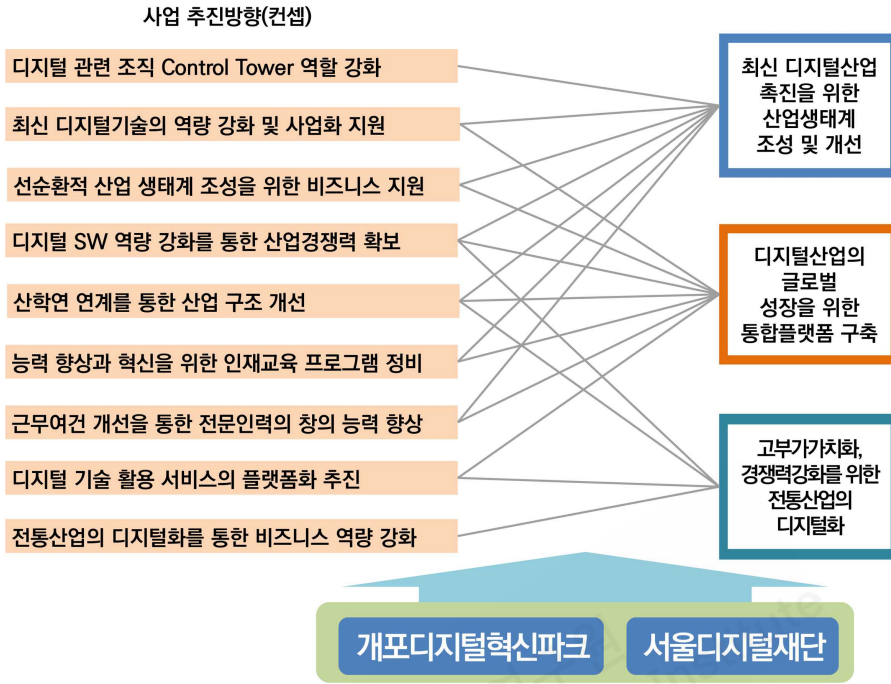
## 산업의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양분 제공자의 역할 수행



[그림 3] 디지털산업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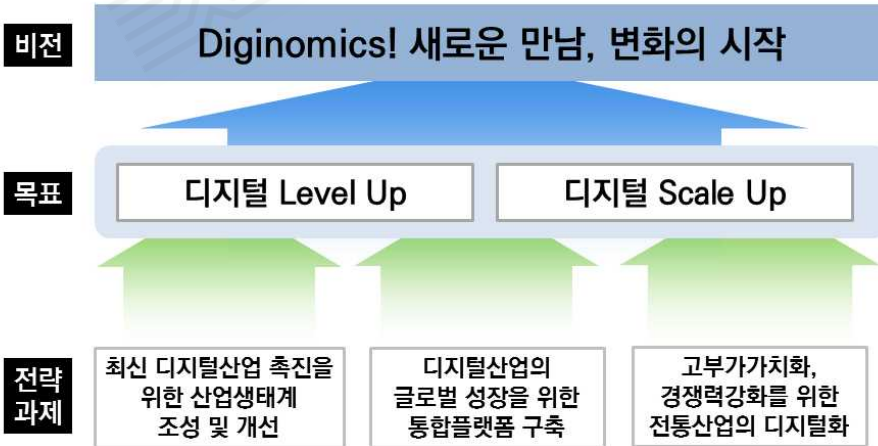
## 서울시 디지털산업 육성 위한 3개 전략과제 도출하고 비전 수립

서울시 디지털산업의 비전 수립을 위하여 우선 디지털산업 육성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 육성방향으로부터 도출한 서울시의 역할, 사업 관련 컨셉 등을 바탕으로 사업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기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포디지털 혁신파크와 서울디지털재단도 함께 고려하였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 디지털산업 육성을 위한 3개의 전략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림 4] 서울시 디지털산업의 사업 추진방향과 전략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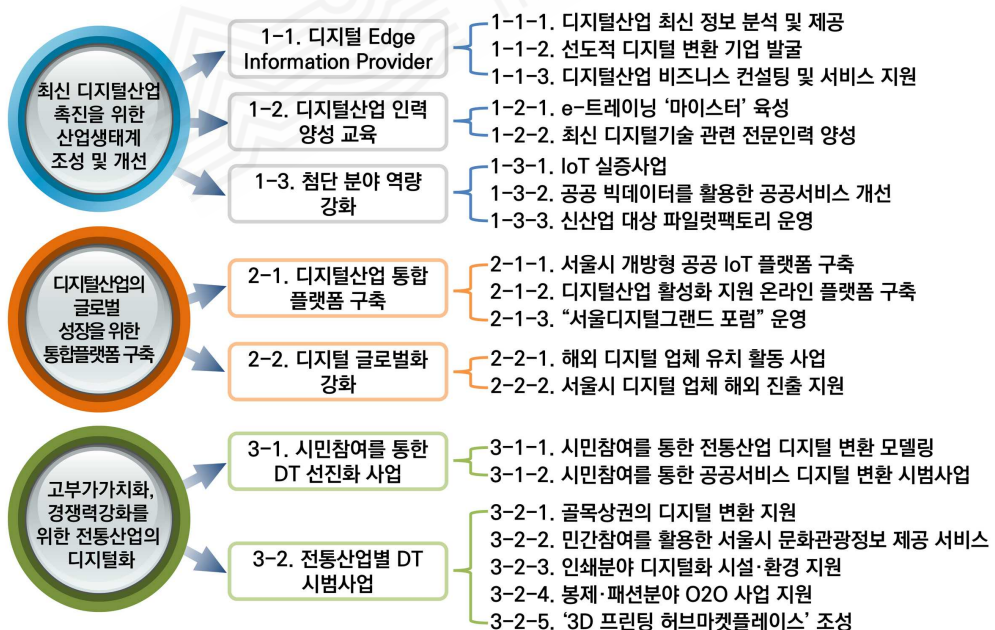
도출한 전략과제와 함께 목표를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서울시 디지털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을 수립하였다.



[그림 5] 서울시 디지털산업의 비전·목표·전략과제

## 서울시, 디지털산업 생태계 조성·통합플랫폼 구축 등에 앞장서야

서울시 디지털산업의 비전달성을 위한 3개의 전략과제는 7개의 추진사업, 20개의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최신 디지털산업 촉진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및 개선’에서는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비중이 큰 최신 디지털산업의 산업생태계를 고려하여 업체의 운영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최신 정보 분석 및 제공, SW 역량 강화 교육, 실증사업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 디지털산업 관련 스타트업, 중소기업체들의 아이디어 사업화 및 운영 초기단계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해소를 통한 생태계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 ‘디지털산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에서는 디지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력을 갖추기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업체 지원 정책을 추진하며, 포럼 운영, 업체의 글로벌 진출 및 유치지원 사업 등을 제시하였다. 산업 내 지식 교류와 네트워크 활성화, 업체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세 번째, ‘고부가가치화, 경쟁력강화를 위한 전통산업의 디지털화’에서는 전통산업의 생산체계를 개선하고 공공서비스에서 시민참여 비중을 강화하는 정책과 함께 시민참여를 통한 전통산업과 공공서비스 개선, 전통산업의 분야별 디지털화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그림 6] 서울시 디지털산업의 세부 추진과제 도출